

ISSN: 2800-051X

Hankook Research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제366-2호)

여론속의 여輿론論

2025 부동산인식조사:
주택 소유 및 투자 인식, 주택 구입 계획

2026. 2. 3

담당자 이동한 수석연구원

전화 | 02-3014-1060
e-mail | dhlee@hrc.co.kr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 한국리서치가 기획하고 운영하는 자체 조사입니다.
- 격주로 시행하는 정기조사입니다.
- 특정 의제를 다각도로 조사하고 분석하는 심층 여론조사입니다.
여론의 현상과 함께 흐름을 추적하고, 여론 속의 민심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 정기지표-기획조사 등으로 구성합니다.
- 정기지표는 국가, 사회, 개인과 관련한 국민들의 인식 추이를 제시합니다.
- 기획조사는 한국리서치 연구원이 기획하고 분석합니다. 주제에 따라 외부 전문가와 함께 기획하고 분석 및 보도를 함으로써, 여론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돋고자 합니다.
-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에디터들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

운영책임

이동한 수석연구원

전화 | 02-3014-1060
e-mail | dhlee@hrc.co.kr

연구진

이소연 선임연구원

전화 | 02-3014-1062
e-mail | lee.sy@hrc.co.kr

저작권 정책

- 본 보고서에서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텍스트, 차트 및 그래프)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써, 별도의 저작권 표시 또는 다른 출처를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주)한국리서치에 저작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의 콘텐츠를 무단 복제, 배포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36조의 지적재산권침해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는 (주)한국리서치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든 성과물입니다. 출처를 명기하지 않고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므로 위 행위자에 대해 해당 법률에 따른 조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로 연결되도록 링크하는 것은 허용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출처는 반드시 명기하여야 합니다.
- 보도, 연구, 교육 등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익적 목적을 위해 본 보고서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인용은 저작물의 일부분에 한정되어야 하며, 전체 내용의 10% 이상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저작권 침해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를 영리 목적 없이 개인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복제가 가능합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로 수익을 얻거나 이에 상응하는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한국리서치와 사전에 별도의 협의를 하거나 허락을 얻어야 하며, 협의 또는 허락을 얻어 자료의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에도 출처가 (주)한국리서치임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합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하는 경우에도 단순한 오류 정정 이외에 내용의 무단변경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응답 사례 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1 주택 보유에 대한 인식

내 소유의 집은 있어야 한다 85%, 여전히 높은 수준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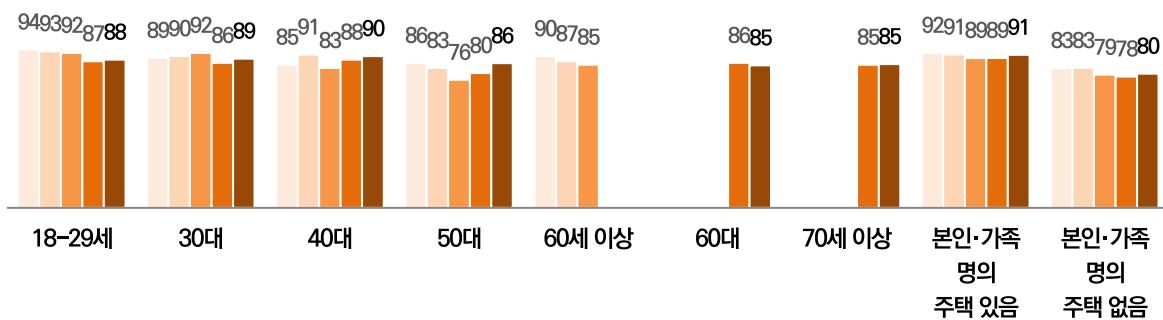
내 소유의 집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그렇다(매우 그렇다+대체로 그렇다)'는 응답이 87%, '그렇지 않다(별로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13%로, 10명 중 8명 이상이 집을 소유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2021년 이후 '내 집은 있어야 한다'는 인식이 85~89%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연령대와 관계없이 '내 소유의 집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높은 가운데,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서는 다소간의 차이가 확인된다. 본인·가족 명의 주택이 있는 사람 중 91%가 '내 소유의 집은 있어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주택이 없는 사람은 80%가 동의한다. 11%포인트의 차이가 있으나, 주택이 없는 사람도 10명 중 8명은 집 소유의 필요성에 동의한다. 주거 형태와 관계없이 자가 소유에 대한 열망과 필요성 인식은 높다고 볼 수 있다.

10명 중 8명 이상(87%), '내 소유의 집은 있어야 한다' 집을 소유해야 한다는 인식은 큰 변화 없이 높은 수준 이어져



'내 소유의 집은 있어야 한다' 응답



질문 : 내 소유의 집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비고: 2024년부터 60세 이상을 60대와 70세 이상으로 세분화해서 조사

응답자 수: 각 조사별 1,000명

조사기간 : 2021. 11.12 ~ 15 // 2022. 10.14 ~ 17 // 2023. 11.10 ~ 13 // 2024. 11. 8 ~ 11 // 2025. 11. 7 ~ 10

'주택가격이 오르지 않아도', '전세가격 낮아지더라도' 내집 소유 필요하다는 인식 다수 '보유세 인상되더라도' 내 집 필요 60%, '대출이자 부담 커지더라도' 내 집 필요 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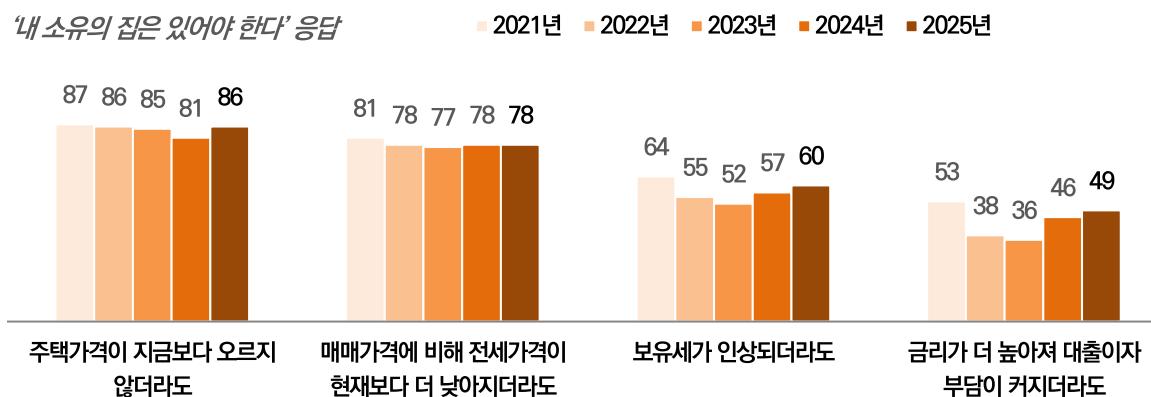
주택에 대한 다양한 조건을 제시하고, 주택 소유 의향에 변화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았다. '주택가격이 지금보다 오르지 않더라도' 내 소유의 집은 있어야 한다는 응답이 86%, '매매가격에 비해 전세가격이 현재보다 더 낮아지더라도' 내 집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78%로, 자산 가치 상승이나 전세 대비 매매의 경제적 이점이 줄어들더라도 대다수가 집 소유를 원하고 있다. 반면 비용 부담이 증가하는 조건에서는 동의 비율이 낮아진다. '보유세가 인상되더라도' 내 집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60%, '금리가 더 높아져 대출이자 부담이 커지더라도' 내 집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49%로, 실질적인 비용 증가 상황에서는 집 소유에 대한 의지가 다소 약해지는 모습이다. [주거비 지출에 다수가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결과와 연결되는 지점이다.](#)

'주택가격이 오르지 않더라도' 내 집은 있어야 한다는 인식은 85% 내외, '전세가격이 낮아지더라도' 내 집은 있어야 한다는 인식은 80% 내외 수준에서 2021년 이후 큰 변화가 없다. 반면 '보유세가 인상되더라도', '대출이자 부담이 커지더라도' 내 집은 있어야 한다는 인식은 등락을 보인다. 보유세 인상 시 집 소유 의향은 2021년 64%에서 2023년 52%까지 낮아졌다가, 다시 60%까지 회복했다. 대출이자 부담 시 집 소유 의향도 2021년 53%로 시작해 2023년 36%까지 낮아졌다가, 올해 49%까지 올라섰다.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았던 2022년 ~ 2023년에는 보유세 및 대출이자 부담이 내 집 마련을 망설이는 요인으로 작용했으나, 금리가 낮아지면서 부담을 느끼는 사람도 감소하였다고 볼 수 있다.

조건별 주택 소유 필요성은 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네 가지 조건 모두에서 주택 보유자의 동의 비율이 미보유자보다 높다. 이미 주택을 소유한 사람일수록 다양한 조건에서도 집 소유의 필요성을 더 강하게 인식한다.

**10명 중 8~9명은 '주택가격이 오르지 않아도', '전세가격 낮아지더라도' 내집 소유 필요하다고 인식
'보유세 인상되더라도' 내집 소유 필요하다 60%, '대출이자 부담 커지더라도' 내집 소유 필요하다 49%**

(단위 : %)



질문 : 주택에 대한 다음 각각의 의견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 주택가격이 지금보다 오르지 않더라도 내 소유의 집은 있어야 한다
- 매매가격에 비해 전세가격이 현재보다 더 낮아지더라도 내 소유의 집은 있어야 한다
- 보유세가 인상되더라도 내 소유의 집은 있어야 한다
- 금리가 더 높아져 대출이자 부담이 커지더라도 내 소유의 집은 있어야 한다

비고: 매우 그렇다 + 대체로 그렇다 응답의 합

응답자 수: 각 조사별 1,000명

조사기간 : 2021. 11.12 ~ 15 // 2022. 10.14 ~ 17 // 2023. 11.10 ~ 13 // 2024. 11. 8 ~ 11 // 2025. 11. 7 ~ 10

주택 보유자가 미보유자보다 다양한 조건 상황에서도 집 소유 필요하다는 인식 높아

(단위 : %)

‘…, 내 소유의 집은 있어야 한다’ 사례수 (명)		주택가격이 지금보다 오르지 않더라도		매매가격에 비해 전세가격이 현재보다 더 낮아지더라도		보유세가 인상되더라도		금리가 더 높아져 대출이자 부담이 커지더라도	
		그렇다 (매우+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별로+전혀)	그렇다 (매우+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별로+전혀)	그렇다 (매우+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별로+전혀)	그렇다 (매우+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별로+전혀)
전체	(1,000)	86	14	78	22	60	40	49	51
성별									
남자	(495)	84	16	78	22	60	40	52	48
여자	(505)	87	13	77	23	60	40	47	53
연령									
18~29세	(150)	87	13	75	25	66	34	50	50
30대	(150)	86	14	79	21	64	36	53	47
40대	(171)	85	15	78	22	62	38	54	46
50대	(194)	84	16	75	25	57	43	44	56
60대	(178)	86	14	78	22	52	48	45	55
70세 이상	(157)	88	12	81	19	61	39	52	48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원미만	(330)	84	16	76	24	58	42	47	53
300만원 이상~600만원 미만	(424)	87	13	78	22	61	39	51	49
600만원 이상	(245)	85	15	79	21	62	38	49	51
이념성향									
진보층	(250)	85	15	75	25	60	40	42	58
중도층	(369)	87	13	77	23	57	43	50	50
보수층	(356)	85	15	80	20	64	36	53	47
주택 보유 여부									
주택 보유	(657)	89	11	82	18	64	36	53	47
주택 미보유	(343)	78	22	69	31	53	47	43	57
거주지역 집값 인식									
비싸다	(544)	84	16	75	25	58	42	48	52
적당하다	(226)	87	13	79	21	62	38	50	50
싸다	(230)	89	11	83	17	63	37	52	48

질문 : 주택에 대한 다음 각각의 의견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 주택가격이 지금보다 오르지 않더라도 내 소유의 집은 있어야 한다
- 매매가격에 비해 전세가격이 현재보다 더 낮아지더라도 내 소유의 집은 있어야 한다
- 보유세가 인상되더라도 내 소유의 집은 있어야 한다
- 금리가 더 높아져 대출이자 부담이 커지더라도 내 소유의 집은 있어야 한다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5. 11. 7 ~ 10

부동산 투자 바람직하다 40%, 바람직하지 않다 49% 2023년 이후 부동산 투자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 우세

부동산 투자가 '바람직하다(매우+대체로)'는 응답이 40%, '바람직하지 않다(별로+전혀)'는 응답이 49%로, 부동산 투자에 부정적인 인식이 긍정적인 인식보다 9%포인트 높다. 부동산 투자가 바람직하다는 인식은 2021년(47%)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2024년과 마찬가지로, 연령과 소득, 이념성향에 따른 인식차이가 확인된다. 18~29세에서는 부동산 투자가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50%로 절반에 달하며,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31%)보다 19%포인트 높다. 반면 50대 이상에서는 부동산 투자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이 절반을 넘는다. 또한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에서는 부동산 투자가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29%에 그치는 반면, 300만원~600만원(46%)과 600만원 이상(43%)에서는 긍정과 부정 인식이 엇비슷해 인식차이가 확인된다. 이념성향별로도, 보수층에서는 절반(48%)이 부동산 투자가 바람직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반면, 진보층에서는 절반 이상(58%)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보인다.

지역별로는 서울(바람직하다 44%, 바람직하지 않다 46%)과 인천·경기(45% 대 44%) 등 수도권에서는 긍정과 부정 인식이 팽팽하게 엇갈리는 반면, 대전·세종·충청(34% 대 55%), 광주·전라(34% 대 55%), 대구·경북(29% 대 53%) 등 비수도권에서는 부정적인 인식이 20%포인트 내외 더 높다.

부동산 투자 바람직하다 40%, 바람직하지 않다 49% 2023년 이후 부동산 투자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 우세

(단위 : %)




질문 :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자 수: 각 조사별 1,0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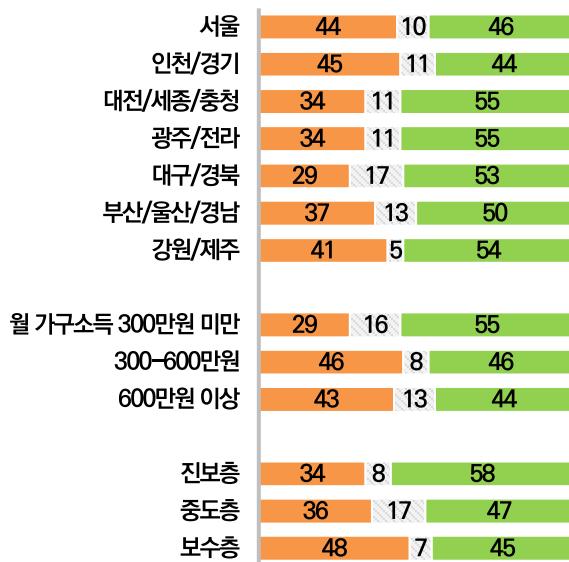
조사기간 : 2021. 11.12 ~ 15 // 2022. 10.14 ~ 17 // 2023. 11.10 ~ 13 // 2024. 11. 8 ~ 11 // 2025. 11. 7 ~ 10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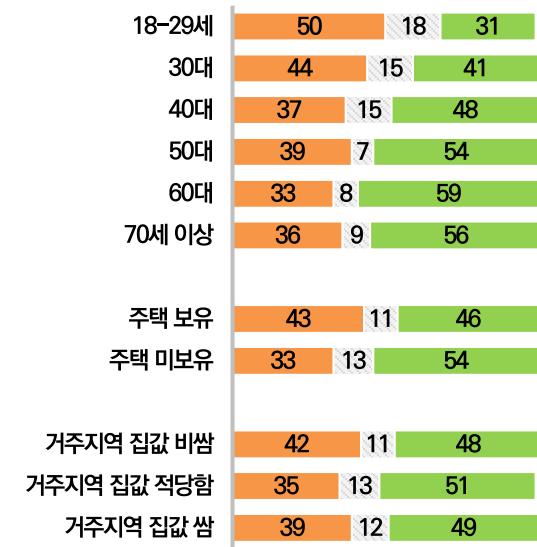
18~29세에서는 50%가 '부동산 투자 바람직하다' 인식, 다른 연령대와 차이 보여
수도권 거주자, 가구소득 300만원 이상, 주택 보유자는 부동산 투자 인식 엇갈려

(단위 : %)

■ 부동산 투자 바람직하다(매우+대체로)



■ 부동산 투자 바람직하지 않다(별로+전혀)



질문 :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 2025. 11. 7 ~ 10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2 주택 구입 의향 및 고려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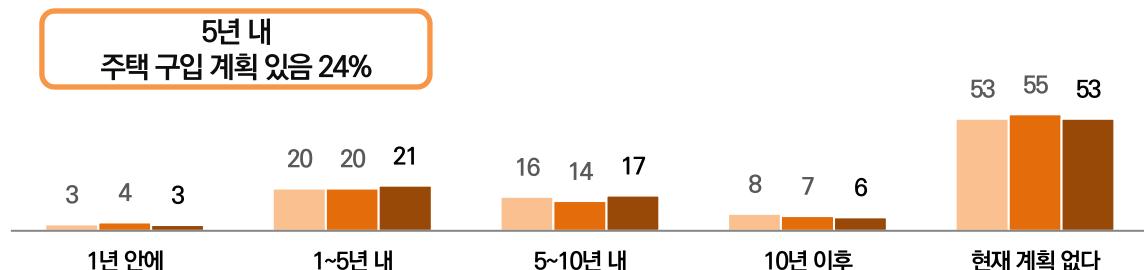
향후 5년 내 주택 구입 계획 있다 24%, 최근 3년 간 큰 변화 없어

향후 5년 내에 주택 구입 계획이 있는 사람은 전체의 24%이다(1년 내 3%, 1~5년 내 21%). 2023년 이후 큰 변화는 없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본인 혹은 가족 명의의 주택이 없는 사람 중 5년 내 주택 구입 계획이 있는 사람도 25%로 전체 평균과 비슷하다. 현재 거주지역 집값이 싸다고 인식하는 사람 중에서는 67%가 주택 구입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향후 5년 내 주택 구입 계획 있다 24%, 최근 3년 간 큰 변화 없어
현 거주지역 집값이 싸다고 보는 사람 중에서는 67%가 주택 구입 계획 없어

■ 2023년 ■ 2024년 ■ 2025년

(단위 : %)



	사례 수 (명)	주택 구입 계획					
		1년 안에	1~5년 내	5년 내	5~10년 내	10년 이후	현재는 계획 없다
전체	(1,000)	3	21	24	17	6	53
연령							
18~29세	(150)	2	10	13	26	20	41
30대	(150)	3	30	32	25	10	33
40대	(171)	4	25	29	23	6	42
50대	(194)	4	25	28	16	4	52
60대	(178)	2	19	21	7	0	71
70세 이상	(157)	2	18	20	5	1	74
주택 보유 여부							
보유함	(657)	3	21	24	15	5	57
보유하지 않음	(343)	3	22	25	20	10	45
거주지역 집값 인식							
비싸다	(544)	4	24	28	19	9	44
적당하다	(226)	2	19	21	16	4	59
싸다	(230)	1	17	19	11	3	67

질문 : 주택 구입 계획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언제 구입할 예정이십니까?

응답자 수: 1,0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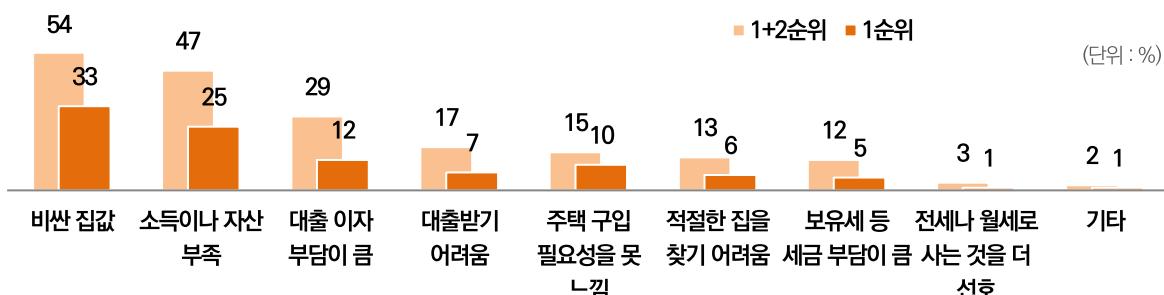
조사기간: 2023. 11.10 ~ 13 // 2024. 11.8 ~ 11 // 2025. 11. 7 ~ 10

주택을 구입하지 않거나, 구입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비싼 집값(54%)’과 ‘소득·자산의 부족’(47%)

주택을 구입하지 않거나, 구입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비싼 집값’을 꼽은 사람이 54%로 가장 많고, ‘소득이나 자산 부족’이 47%로 뒤를 잇는다. ‘대출 이자 부담이 큼’(29%), ‘대출받기 어려움’(17%), ‘주택 구입 필요성을 못 느끼’(15%) 등이 그 다음이다(1+2순위 기준).

아직 경제적으로 자립을 하지 못했거나,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사람이 대부분인 18~29세에서는 63%가 ‘소득이나 자산 부족’이라고 답했다.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도 56%가 ‘소득이나 자산 부족’을 주택 구입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로 언급했다. 한편 30대와 40대에서는 3명 중 1명이 ‘대출 이자 부담’을 언급해, 다른 연령대 대비 다소 높은 편이다.

주택을 구입하지 않거나, 구입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비싼 집값(54%)’과 ‘소득·자산의 부족’(47%)



1+2 순위 응답	사례수 (명)	비싼 집값	소득이나 자산 부족	대출 이자 부담이 큼	대출받기 어려움	주택 구입 필요성을 못 느끼	적절한 집을 찾기 어려움	보유세 등 세금 부담이 큼	전세나 월세로 사는 것을 더 선호	기타
전체 연령	(1,000)	54	47	29	17	15	13	12	3	2
18~29세	(150)	61	63	19	12	11	18	5	4	1
30대	(150)	58	46	37	23	6	10	12	4	0
40대	(171)	57	37	35	21	13	17	7	2	1
50대	(194)	52	43	28	21	15	10	14	5	2
60대	(178)	47	48	29	13	20	12	17	2	2
70세 이상	(157)	51	47	28	13	22	12	16	4	3
주택 구입 계획										
향후 5년 내	(240)	56	40	31	20	7	21	13	5	1
향후 5년 이후	(230)	54	46	35	18	7	16	12	5	1
구매 계획 없음	(529)	53	51	26	15	22	8	12	2	2
주택 보유 여부										
주택 보유	(657)	53	43	31	18	16	13	15	4	1
주택 미보유	(343)	57	56	27	16	13	13	8	3	2
거주 지역 집값 인식										
비싸다	(544)	59	46	31	17	12	12	11	5	1
적당하다	(226)	45	48	25	19	18	14	13	2	3
싸다	(230)	51	50	29	15	17	14	14	2	2

질문: 주택을 구입하지 않거나, 구입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최대 2개까지 선택해 주세요.

비고: 복수응답, 최대 2순위까지 응답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5. 11.7 ~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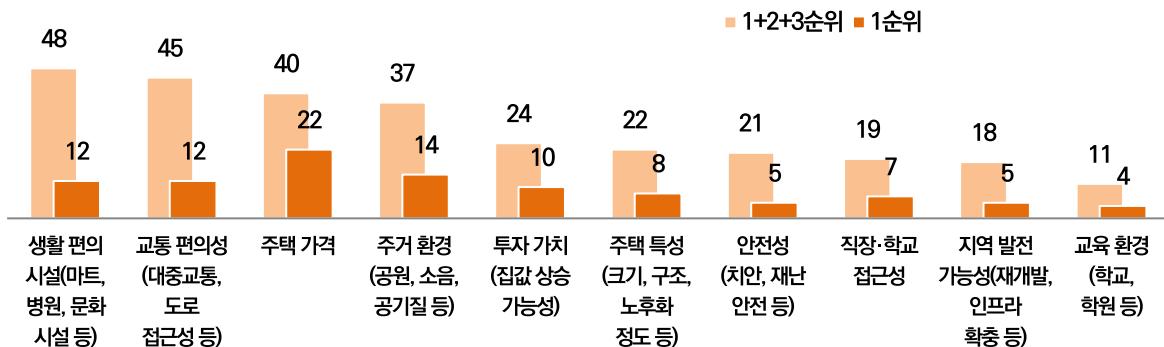
주택 구입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은 '생활편의시설'과 '교통 편의성' 등

주택 구입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으로는 '생활편의시설(마트, 병원, 문화시설 등)'을 꼽은 사람이 48%로 가장 많고, '교통 편의성(대중교통, 도로 접근성 등)'이 45%로 뒤를 잇는다. 이어서 '주택가격'(40%), '주거환경(공원, 소음, 공기질 등)''(37%), '투자 가치(집값 상승 가능성)''(24%), '주택 특성(크기, 구조, 노후화 정도 등)''(22%), '안전성(치안, 재난 안전 등)''(21%) 순이다(1+2+3순위 기준).

70세 이상에서는 '생활편의시설'(62%)과 '교통 편의성'(58%)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다른 연령대 대비 최소 10%포인트 이상 높아, 고령층이 일상생활의 편리함을 특히 중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18~29세(33%)와 30대(30%)에서는 '직장·학교 접근성'이 전체 평균(19%)보다 10%포인트 이상 높고, 40대에서는 '교육환경(학교, 학원 등)'이 21%로 다른 연령대 대비 높은 편이다.

주택 구입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은 '생활편의시설(48%)'과 '교통 편의성(45%)' 등의 순

(단위 : %)



1+2+3순위	사례수 (명)	생활 편의시설	교통 편의성	주택 가격	주거 환경	투자 가치	주택 특성	안전성	직장·학교 접근성	지역 발전 가능성	교육 환경
전체 연령	(1,000)	48	45	40	37	24	22	21	19	18	11
18~29세	(150)	43	42	34	30	16	30	31	33	15	11
30대	(150)	38	39	42	31	23	23	23	30	19	18
40대	(171)	41	36	41	33	28	23	17	26	21	21
50대	(194)	51	46	39	37	26	21	19	16	23	5
60대	(178)	53	48	43	44	28	19	20	6	15	4
70세 이상	(157)	62	58	40	44	21	15	19	7	15	7
지역											
서울	(186)	41	45	40	38	29	18	25	21	17	8
인천/경기	(323)	46	51	37	31	26	24	19	21	20	11
부수도권	(491)	53	41	42	40	20	22	22	17	17	12
주택 구입 계획											
향후 5년 내	(240)	43	40	37	38	27	23	18	21	22	15
향후 5년 이후	(230)	44	39	38	32	20	24	24	30	19	11
구매 계획 없음	(529)	52	50	42	38	24	20	22	13	16	9
주택 보유 여부											
주택 보유	(657)	51	46	40	35	25	22	19	17	19	11
주택 미보유	(343)	43	42	40	39	22	22	25	23	16	10

질문: 만약 주택을 구입한다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최대 3개까지 선택해 주세요.

비고: 복수응답. 최대 3순위까지 응답. 기타 및 모르겠다(1+2+3순위 1% 미만) 응답은 보여주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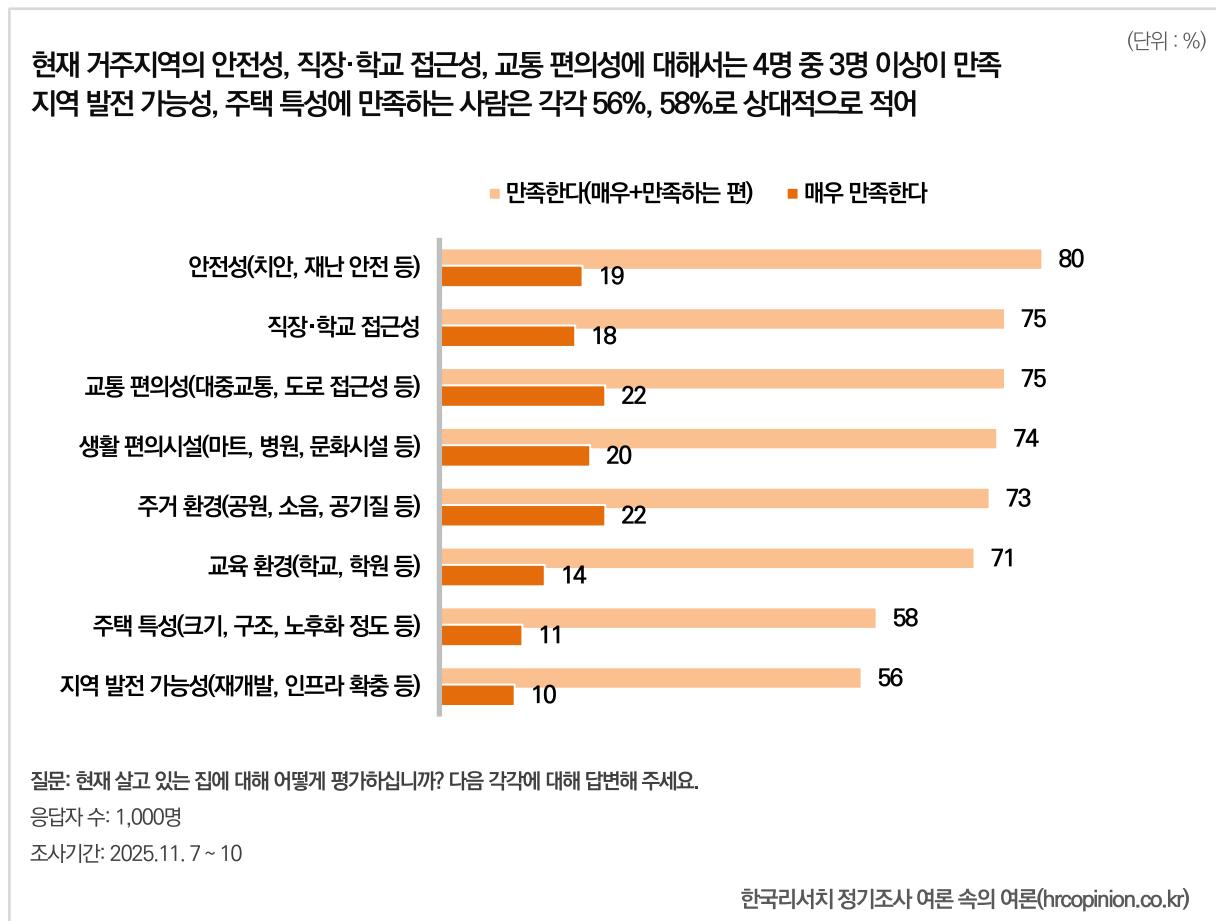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5. 11. 7 ~ 10

현재 거주지역 안전성, 직장·학교 접근성, 교통 편의성에 대해서는 4명 중 3명 이상이 만족 지역 발전 가능성, 주택 특성에 만족하는 사람은 각각 56%, 58%로 상대적으로 적어

현재 살고 있는 집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항목별로 물었다. '안전성(치안, 재난 안전 등)'에 매우 만족, 혹은 만족하는 편이라는 응답이 80%로 가장 높은 가운데, '직장·학교 접근성'(75%), '교통 편의성(대중교통, 도로 접근성 등)(75%)', '생활 편의시설(마트, 병원, 문화시설 등)(74%)', '주거환경(공원, 소음, 공기질 등)(73%)', '교육환경(학교, 학원 등)(71%)' 순으로 만족도가 높다. 반면 '주택 특성(크기, 구조, 노후화 정도 등)(58%)과 '지역 발전 가능성(재개발, 인프라 확충 등)(56%)'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다. 다만 전 항목에서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은 10~22% 수준에 그친다.

서울 거주자의 교통 편의성 만족도는 86%로, 인천·경기(71%)나 비수도권(74%) 거주자의 만족도보다 높다. 또한 주택 보유한 사람은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안전 수준에 만족하는 사람이 84%로, 미보유자(73%) 대비 11%포인트 높다. 주택 특성에 대한 만족도 역시 주택 보유자(62%)가 미보유자(50%)보다 12%포인트 높다.



서울 거주자 중 86%는 교통 편의성 만족**안전성, 직장·학교 접근성 등 만족도 전반적으로 높지만, ‘매우 만족’하는 사람은 20% 내외 수준**

(단위 : %)

		안전성 (치안, 재난 안전 등)		직장·학교 접근성		교통 편의성 (대중교통, 도로 접근성 등)		생활 편의시설 (마트, 병원, 문화시설 등)	
사례수 (명)		매우 만족	+ 만족 하는 편	매우 만족	+ 만족 하는 편	매우 만족	+ 만족 하는 편	매우 만족	+ 만족 하는 편
전체	(1,000)	19	80	18	75	22	75	20	74
연령									
18~29세	(150)	25	80	23	74	27	78	22	79
30대	(150)	19	73	18	67	18	69	23	71
40대	(171)	13	84	15	77	19	74	20	73
50대	(194)	19	82	19	79	24	78	19	71
60대	(178)	18	78	17	70	20	68	19	70
70세 이상	(157)	22	85	15	83	24	82	19	80
지역									
서울	(186)	23	82	23	76	29	86	25	75
인천/경기	(323)	18	81	15	70	20	71	20	75
비수도권	(491)	18	79	17	78	21	74	19	73
주택 구입 계획									
향후 5년 내	(240)	20	78	18	74	20	74	22	75
향후 5년 이후	(230)	20	78	22	74	24	77	22	75
구매 계획 없음	(529)	18	83	16	76	22	75	19	73
주택 보유 여부									
주택 보유	(657)	20	84	18	77	23	75	21	74
주택 미보유	(343)	17	73	16	72	20	75	18	73

질문: 현재 살고 있는 집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다음 각각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5.11. 7 ~ 10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주택 특성이나 지역 발전 가능성에 대한 만족도는 50%대로 상대적으로 낮아
주택 보유자의 주택 특성 만족도는 62%, 미보유자 대비 12%포인트 높아**

(단위 : %)

		주거 환경 (공원, 소음, 공기질 등)		교육 환경 (학교, 학원 등)		주택 특성 (크기, 구조, 노후화 정도 등)		지역 발전 가능성 (재개발, 인프라 확충 등)	
사례수 (명)		매우 만족 + 만족 하는 편	매우 만족 하는 편	매우 만족 + 만족 하는 편	매우 만족 하는 편	매우 만족 + 만족 하는 편	매우 만족 하는 편	매우 만족 + 만족 하는 편	매우 만족 하는 편
전체	(1,000)	22	73	14	71	11	58	10	56
연령									
18~29세	(150)	21	69	19	73	16	67	12	63
30대	(150)	21	65	14	62	12	55	11	52
40대	(171)	18	75	12	70	8	51	8	53
50대	(194)	24	76	15	73	14	59	12	59
60대	(178)	20	68	10	68	8	55	9	50
70세 이상	(157)	27	82	12	79	11	65	9	61
지역									
서울	(186)	24	70	19	70	11	57	15	58
인천/경기	(323)	20	73	11	68	14	58	9	58
비수도권	(491)	22	73	13	73	10	59	9	54
주택 구입 계획									
향후 5년 내	(240)	18	73	13	67	12	54	10	60
향후 5년 이후	(230)	21	68	18	71	12	58	12	59
구매 계획 없음	(529)	24	75	12	72	11	61	9	53
주택 보유 여부									
주택 보유	(657)	24	75	14	71	14	62	11	56
주택 미보유	(343)	17	67	12	70	6	50	8	56

질문: 현재 살고 있는 집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다음 각각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5.11. 7 ~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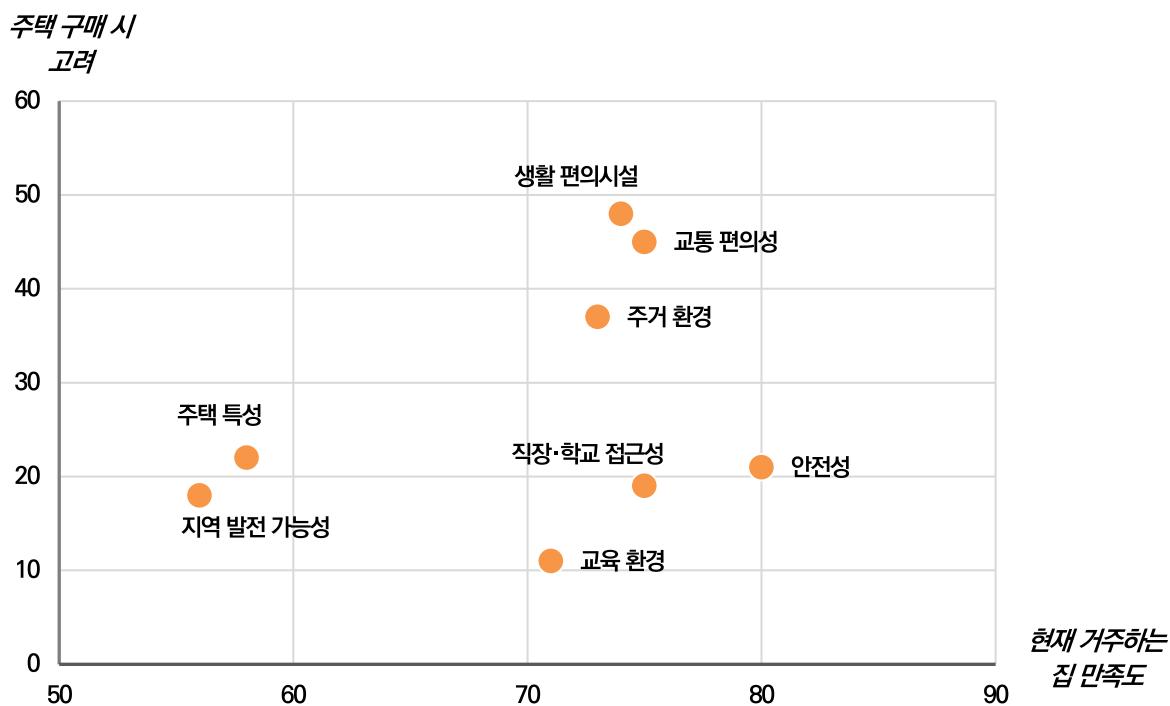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생활편의시설, 교통 편의성, 주거 환경은 현재 만족도 높고, 주택 구매 시에도 중요하게 고려 안전성과 직장·학교 접근성, 교육 환경은 만족도 높지만 주택 구매 시 중요 고려요인은 아냐

현재 거주지에 대한 만족도(X축)와 주택 구매 시 고려하는 정도(Y축)를 산포도로 나타내 보았다. 생활편의시설, 교통 편의성, 주거환경은 현재 만족도가 70% 이상으로 높으면서 주택 구매 시에도 40% 내외가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이다. 반면 안전성은 현재 만족도가 80%로 가장 높지만, 주택 구매 시 고려한다는 응답은 21%에 그친다. 직장·학교 접근성(만족도 75%, 고려 19%)과 교육환경(만족도 71%, 고려 11%)도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주택 특성과 지역 발전 가능성은 현재 만족도가 50%대로 낮고, 주택 구매 시 고려 비율도 20% 내외로 낮은 편이다.

**생활편의시설, 교통 편의성, 주거 환경은 현재 만족도도 높고, 주택 구매 시에도 중요하게 고려
안전성과 직장·학교 접근성, 교육 환경은 만족도는 높은 편이지만 주택 구매 시 중요 고려요인은 아냐**

(단위 : %)



질문: 현재 거주하는 집에 대한 평가 – 현재 살고 있는 집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다음 각각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주택 구매 시 고려 요인 – 만약 주택을 구입한다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최대 3개까지 선택해 주세요.

비고: ‘현재 거주하는 집에 대한 평가’는 만족도(매우 만족 + 만족하는 편) 응답 제시
‘주택 구매 시 고려 요인’은 복수응답. 최대 3순위까지 응답.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5.11. 7 ~ 10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조사개요

구분	내용
모집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전국의 만18세 이상 남녀
표집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한국리서치 마스터샘플(25년 10월 기준 약 97만명)
표집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할당추출
표본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1,000명
표본오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pm 3.1\%$
조사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웹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
가중치 부여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치 부여(셀가중) (2025년 9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응답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조사요청 23,697명, 조사참여 1,624명, 조사완료 1,000명 (요청대비 4.2%, 참여대비 61.6%)
조사일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2025년 11월 7일 ~ 11월 10일
조사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주)한국리서치(대표이사 노익상)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여론속의
여輿론論

Hankook Research

